

중국 현대 휴머니즘의 기수 ‘인간에 대한 예의’를 묻다

이플리오 편집부 김민아

“역사란 실로 만만치 않은 상대이다. 언제나 밤의 어둠을 틈타 불의의 습격을 가해 온다.”

중국 현대 휴머니즘의 기수 다이 호우잉의 《사람아 아, 사람아!》는 이렇게 시작한다. 중국 문화대혁명을 배경으로 한 이 책은 ‘완벽한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휴머니즘을 완성해 간다. 좌파와 우파, 부르주아적 반동 등 1960년대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대는 살벌한 깃발만이 나돌 뿐 어느 누구도 새로운 소리를 낼 수 없었던 침묵의 시대였다. 여기에 한 명의 주인공 호 젠후가 있다.

작가는 호 젠후를 내세워 휴머니즘을 말한다. 유물사상의 마르크스주의와 휴머니즘을 결합시키려 했던 호 젠후는 수도 없이 격랑을 만나지만 끝까지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상에 따라 끊임없이 현실과 부딪치며 개선하려고 하고, 중국 인민들의 부박한 삶을 기꺼이 함께 겪어낸다. 어느새, 신념과 이상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낯설어진 이 시대에 호 젠후란 인물은 가치 있게 다가온다.

호 젠후에겐 나라에 바위처럼 굳어진 이념이나 사상보다 더 소중한 단어들 이 있다. 아버지, 농민, 사랑, 그리고 중국 인민들…。 위험한 생각 때문에 단죄당하고 고통당하면서도 끝내 인간을 저버릴 수 없었던 것은 언제나 그 곁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인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 인물, 손 유에는 사랑을 말한다. 이념과 정신세계의 합치를 가리키는 완벽한 사랑을 이루기까지 그녀는 호 젠후와 20년간 방황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절대 계산하지 않고 전적으로 상대를 위한 온전한 사랑. 그렇기에 사랑은 쉽지 않았고 기나긴 유예 기간을 거쳐야 했다.

손 유에게도 강한 신념이 있었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열정이 있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위한 떨림도 있었다. 세상의 이목을 두려워하고 가정의 불행을 겁내는 여린 인물이지만 끝내 조심스럽게 사랑을 완성해 가는 그녀의 삶은 안개 속의 꽃이라는 별명을 가진 작가의 또 다른 일면이다.

진부할 수 있는 주제인 사랑이 이 책에서 다른 빛을 내는 건 완벽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작가의 진지한 물음이자 해답이다. 육체적 쾌락과 허룻밤 사랑이 흔해진 시대에 서로가 서로에게 한 발짝 한발짝씩 떨리듯 다가가며, 서로의 이상과 정신세계를 조화시키는 이들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진부할 수 있는 주제인 사랑이 이 책에서 다른 빛을 내는 건 완벽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작가의 진지한 물음이자 해답이다.

한권의 좋은 책에서, 또 다른 좋은 책으로... '책'을 매개로 사람들이 이어지길 바라며 만든 코너, 다음달에는 이 글을 쓴 필자가 소개하는 사람이 이어서 만들 예정이다.



《사랑아 아, 사랑아!》 | 다이 호우잉 지음 | 신영복 옮김 | 다섯수레 | 458쪽 | 값 6,500원

아픔의 시절을 배경으로 사랑과 인간을 이야기하는 이 책은 독특한 형식에서도 미덕을 찾을 수 있다. 작가는 열한 명의 인물을 소재목으로 취하면서 그들의 입으로 서술해 간다. 1인칭 시점이지만 등장인물들 모두의 시점이기에 결과적으로 전지적 작가시점의 효과를 보인다. 모든 인물들의 생각과 감정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책에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없다. 단지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몸부림치는, 중국 인민의 해방과 자유로운 시대를 꿈꾸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인상 깊게 읽은 책의 리뷰를 부탁 받았을 때 세 권을 떠올렸다. 조세희 작가의 《침묵의 뿌리》와 전통과 문명의 충돌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오래된 미래》 그리고 《사랑아 아, 사랑아!》. 세 권 중에 이 책을 선택한 것은 내 자신의 반성에서 비롯한다.

《사랑아 아, 사랑아!》가 나온 게 1991년이니 벌써 10년이 넘었다. 10년이 넘은 지금에도 이 책이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은 나의 신념은 무엇인가이다. 신념이란 게 있기는 했던가. 거대한 역사에 대한 고뇌나 나라 사람들에 대한 애정은커녕 자신의 사소한 일상에도 힘들어하며 겨우겨우 연명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책의 등장인물이 아름다운 건 어려운 시기를 감내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을 입버릇처럼 되뇌면서도 쉽사리 마음속에는 자리를 주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도 중국 문화대혁명에 버금가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사랑아 아, 사랑아!》는 중국 역사에 휴머니즘의 맹아가 싹트는 것을 기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에게 '인간에 대한 예의'가 놓여 있는지를 되물게 되는 소중한 책이다.

마지막으로 책을 덮고도 한동안 떠나지 않은 문장을 옮겨본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밖에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동물뿐이죠. 저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자식이죠. 조국과 인민의 경험은 즉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 경험에서부터 태어난 모든 문제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책임이며 권리이기도 하지요.” **다섯수레**

서로의 이상과 정신세계를 조화시키려는 이들의 사랑이 통해
지친 한 사람의 가슴이 활짝 열려주고 있었다.